

바이오제약사, 타사 주식을 매입하는 이유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 9월 13일,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조성한 '라이프 사이언스 펀드'가 국내 ADC 개발기업인 에임드바이오에 대한 지분 투자와 공동 연구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 유한양행 등 국내 바이오제약사들도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타 기업 지분투자 활동을 펼치고 있음.
 - 유한양행은 작년 9월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치료제 개발기업인 에이투젠의 지분을 인수한데 이어, 올해 4월 다중 표적 항체 기술을 보유한 프로젠에 총 300억원을 투자해 지분 38.9%를 보유하는 최대 주주가 되는 투자계약을 체결함.
 - 종근당은 작년 이엔셀에 20억원의 투자를 통해 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 노하우 및 생산기술을 활용하여 세포·유전자치료제 연구개발을 진행 중임
 - 한미약품은 작년에 미국 스펙트럼이 개발 중인 혁신 항암신약 2종의 미래가치를 선점하고 파트너사와 공고한 협력관계를 위해 240억원 규모 전략적 지분투자를 진행함.
- 2023년 5월, Gilead는 Arcus Biosciences와 현재 진행 중인 감염성질환 치료제 개발 협력 이외에 추가로 항암 치료제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한 10년간의 협력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Arcus에 3500만 달러의 선급금을 지불하기로 함. 또한, Gilead는 올해 6월 면역세포치료제 개발기업인 AlloVir의 주식 약 300만 주를 매입하기도 함.
- 일반적으로 **지분투자(Equity Investment)** 또는 **상호보유(cross-holdings)**라고 불리는 이 거래는 기업들이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신기술에 접근하면서 다양한 시장에 보다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해주며, 이미 형성된 관계도 강화할 수 있음.
- 현 상황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귀결되며, 삼성바이오, 유한양행, Gilead 등 국내외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상당한 지분을 가지면서 타 기업을 지원한다면 신약 개발 성공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임.
 - 바이오스타트업들 대부분 자금이 부족한 어려운 시기로 현 시점에서는 재정적으로 안정된 기업만이 다른 기업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
 - 여러 바이오제약사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은 대기업 및 중견기업으로서는 다양한 치료 영역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접근을 확대할 수 있고, 피투자사들은 재무 상태를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사업화 경험 공유를 통해 신약 개발 리스크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참고자료>

1. Why Biopharma Companies Buy Stock in One Another, BIOSpace, 2023.9.13.
2. 삼성라이프사이언스펀드, 국내 ADC개발사 '에임드바이오'에 투자, 연합뉴스, 2023.9.13
3. 유한 33억·종근당 20억·한미 19억...외부 투자 활발, 데일리팜, 2022.08.23.
4. 한미약품,美스펙트럼에 240억원 규모 전략적 투자, 한국경제, 2022.1.5